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물을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
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
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로작『전당, 전군, 전민이 산
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주
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져
게 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 되었다.

그 날마다 꾸며진 수많은

자강력으로 마련한 나무모생산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로작『전당, 전군, 전민이 산
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주
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져
게 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 되었다.

특히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

양보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
에 맞게 파악화, 공업화, 접악화
가 광범위하게 실현된 2 1 2 1 세기 양
보장, 우리 나라 양보장의 본보

기, 표준으로 세상에 놓고자
망한 만 한 나무모생산기지로 일
떠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온도, 습도, 해비침도, 판산가
스, 풍물방, 관수방, 영광에
비비랑 등 나무모재에 가장 적
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통합조종체계를 풀어놓고 구

휘황한 설계도따라 황금산, 보물산을 가꾸어간다

양보장에서는 나무모생산왕이
미약적으로 끌어나고 싶은 나무
들에 대한 사용률로 산림복구전
투시작전에 비해 2 0 % 이상 장
성한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산림
조성사업에서는 큰 진전이 이루
되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에 국의 호소를 퍼끌어 심장마
데에 세겨놓고 우리 군대와 인
민이 흥금산, 보물산의 역사적
장을 빛내이기 위 한 두정에서 거둔
성과중에서 그 몇 가지만을 꼽아

야본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의 사명을 흔들지 수행할 수 있
게 변모되었다. 머우기 우리의
설계와 차세의 힘으로 일떠세
웠다. 종전의 낡은 생활건물을
대량하게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 천여 m²의 나무모생산기지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세워기
여야 품질을 장연 군과 둔촌한 풍물기
술적토대를 갖춘 1 0 정도의 양
보장을 보완듯이 진실한 품격을
유미로써 새겨진 수많은 나
운 지역 산림경영소의 모체 양보
장들이 아리에배상, 원형암복장,
운진, 나무모양 양단지생산설비
등을 풀어놓고 갖춘 빛을지한 나무
모생산기지로 일신되었다.

안악군의 실태를 물어보자.
군에서는 나무모생산을 파악
화, 공업화, 접악화에 대한 땅
의 높은 뜻을 달고 묘목온실
내부의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
절할 수 있는 장치를 차세의 힘
으로 연구개발하였다. 그리하여
나무모생산에 앞맞는 충분한 조
건을 갖추어놓았으므로 지난해
에 수백만 그루의 학객풀나무모
생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양보장에서도 자연판수에 의
한 낙개분포를 도입한 3정
보의 아리에배장을 새로 건설하
고 나무모재장과 묘목온실을
비롯한 나무모생산토대를 풀어놓

고나마 품질을 짚어낸 당

꾸려놓았으며 수백 m²의 강질유
리운돌과 차세의 힘으로 일떠세
웠다. 종전의 낡은 생활건물을
대량하게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 천여 m²의 나무모생산기지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세워기
여야 품질을 장연 군과 둔촌한 풍물기
술적토대를 갖춘 1 0 정도의 양
보장을 보완듯이 진실한 품격을
유미로써 새겨진 수많은 나
운 지역 산림경영소의 모체 양보
장들이 아리에배상, 원형암복장,
운진, 나무모양 양단지생산설비
등을 풀어놓고 갖춘 빛을지한 나무
모생산기지로 일신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현제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양
보장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보장

과학기술적으로 담보된 높은 사률

산림복구전투시작전에 미하
여 심은 나무들이 대한 사용률
2 0 %이상 상성!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국 축종정
의 높이를 염불수 있게 하는 자
료이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편진
의 목표를 가지는 유통에 조
절할 수 있는 장치를 차세의 힘
으로 연구개발하였다. 그리하여
나무모생산에 앞맞는 충분한 조
건을 갖추어놓았으므로 지난해
에 수백만 그루의 학객풀나무모
생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양보장에서도 자연판수에 의
한 낙개분포를 도입한 3정
보의 아리에배장을 새로 건설하
고 나무모재장과 묘목온실을
비롯한 나무모생산토대를 풀어놓

고나마 품질을 짚어낸 당

장, 도시경영 중앙양보장과의
교류를 통해 높일 수 있는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
시커나가는 길에 참다운 애국의
자속을 세워간 풍물은 철
실은 나무모생산의 더 좋은 패일
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원한 명도가 알아온
지향한 결심이 산림복구전투
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역지경의 정신
으로 이루어놓은 고귀한 열매
들이다.

그뿐이 아니라.

현제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양
보장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보장

정책관찰에서 큰 걸음을 내짚을 수 있게 하였다.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
시커나가는 길에 참다운 애국의
자속을 세워간 풍물은 철

대원들은 뿌리보호제를 비롯하
어 사률률을 높일 수 있는 1 0
여종의 애국가를 다방적으로

편발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실
에서 그 흐름을 확증하였다.

이런 가치있는 산림파학기술
성과들이 산림복구전투에 펼쳐
나온 각지 군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 주고 있다.

사률률 보장에 이바지한 가치
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 1 2 2 호양보장과 국토환경보호
성 중앙양보장에서 만 이복되지 않

았다.

2 0 만개나 되는 비닐주머니
를 만들어 흐름한 군과 청년군과
대군 등에서 나가 온물을 초불
처럼 꽂고 떠나며 창성이란
무모를 뜨기 하루전에 가지자기
와 송치기 전쟁하고 산지에 놓은
계심으면 그 사률률을 1 0 ~ 2 0
%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꼬물내 밝혀냈다.

또한 일정한 농도의 영양액으
로 투여를 처리한 나무들은 불
리한 환경에 대한 견딜성이 강해
서 사용률을 풀어놓았다. 8 ~ 1 3
%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대상
구역과 평원군과 수심평원에 대상
하는 산지에서 확증하였다.

이런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사률률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1 0 0 % 국산화된 라고프를
우리 속으로 풀어놓고 헌원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풀어놓고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쓰여 이용하면 나무모뿌리의
활성을 1 5 ~ 2 5 %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말로 놀라울 것이다.
나무모뿌리를 풀어놓고 우거져
나무심기에서 사률률을 최대
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애국
총령의 팔을 아낌없이 바쳐나
갔다.

이제 그뿐인가, 과학자들은 우
민연금과 진료를 통해 높은 비
율로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착취와 암마,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평화사회를 건설할 것을 희망하였다.

사회주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이 희망은 마침내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고 또 많은 나라들을 그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세상을 놀라 보면 인민대중 중심의 진정한 사회주의는 아직 우리 나라뿐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수십년간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명

인민이 사랑하는 사회주의 찬가들을 들으며

이 땅우에 끊임없이 흘러며진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것은 시대를 전개시키는 땅우에는 반드시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생활의 진리를 가 담겨져 기때문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들을 듣느라 면 누구나 무엇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역사의 흐름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송송장구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수십년간

세상에 부럽 없어라

인간의 사상감정의 분출인 노래를 듣함에 있어서 기본은 사회의 성격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마련이면 해당 사회의 성격에 따라 인간의 사상감정은 여타자기로 표현되거나마는 대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원한 사회에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노래가 나올수 없다.

들이켜보면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이 무드로 노래는 『눈꽃들은 무민강』, 『봉선화』와 같은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뿐이었다.

일제에 의하여 말과 글, 성과 이를 마지막 빼았겠지만 불쌍한 민족에게 그 무슨 친정한 삶의 노래가 있었으리.

아버지수령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자주 힘의 친정한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막론하고 있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인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이 부른 모든 노래들은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였다.

우리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밀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전실하게 미껴있다.

향으로 우리 인민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식사례에 이어 새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헌명한 병도일에 나날이 꽂피는 원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둘러싸여 땅이 좁지 않은가, 이름이 두루한가, 어떤 밥을 먹는가, 고기는 늘 먹는가하고 하여 그들

이 노래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밀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전실하게 미껴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바탕으로 어느

오늘도 우리는 평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창작동기로 된 해주에 명학원 원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제 4 8 (1959)년 5월 어느 날 몸소 학원을 찾았던 주위한 수령님은 원아들이 미루어 한 만

동유럽나라들에서 편이어 사회주의의 밤이 내려워자 미제로 편수로 한 만

동유럽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미스릴게 떠돌아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의 도수

의 생활을 원어버리침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로부터 한말도 못된 또 어느 날에는 평양대학을 가는 원이들을 품집가에서 보시고 그들의 생활에 그만한 불편이 있음에 따라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인민의 막원으로 전변된 사회주의원야가 그립

같이 안겨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활적으로 원노래라고 높이 평가하신 노래 『사회주의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좋다』에는 무르고우,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만복을 누려는 인민들의 항만민족 생활이 전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노래 『제 금없는 우리나라』, 『제상에 이런 나라 더는 없어야』

의 구절처럼 피새기느라던 위대한

수령님의 온덕에 위하여 세상에서 첫

세금없는 나라의 주인으로 부단은 삶

을 누려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

습이 가슴뜻이 안겨온다.

정말이지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행복지니스를 피하면서

이 그대로 기쁨으로 행복이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바탕으로 어느

오늘도 우리는 평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창작동기로 된 해주에

명학원 원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제 4 8 (1959)년 5월 어느

날 몸소 학원을 찾았던 주위한

수령님은 원아들이 미루어 한 만

동유럽나라들에서 편이어 사회주의의 밤이 내려워자 미제로 편수로 한 만

동유럽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

하여 미스릴게 떠돌아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의 도수

를 더 많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아졌다.

죄와 벌은 한 줄 기에서 자란다

박근혜 역도의 집권 4년 짓 악을 단죄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4년 전 2월 25일은 천하의 오미 박근혜가 비렬한 여론조작과 민심기만의 정치부리로 청와대를 강탈한 날이다.

박근혜로서는 윤례의 이날에도 청와대 관찰관과 학자간장들에게 들리며 흐드러지가 아닌 백성의 피는 불로 죽음을 들이끼며 암마의 마술지팡이 미남 권력을 휘둘러온 4년 간의 **「죄적」** 도 되어버려 최악의 타할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작 가련한 박근혜는 수백만 초보의 바다에로 위임된 청와대의 인방에 감히 미하여 죄수복을 입고 수인차에 올라타야 할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죄배가 아닌 피는 불의 고백을 미사고 있음에도 이런것을 두고 빠져나온다.

하늘에 죄를 짓고 천벌을 받다

에로부터 하늘에 끼리는 짓을 하면 벼락을 맞는다고 하였다.

죄피역적들은 제아무리 외세를 믿고 거울거려도 이 하늘을 이고 사는 목숨이 떠는것을 순간도 막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와대 지붕이 아우리 삼각 산안을 높다 해도 하늘아래 떠리는 것을 모르는 박근혜는 4년 동안 빼거지를 쓰자마자 지난날 정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헤어뜨렸던 일인 연체인 가슴에 대결의 둑이 달을 드러내었다.

여도는 권력의 자비에 울려았는지 100일도 되기 전에 우파의 존엄과 제도에 공용연히 도전해 나섰다.

여대 피피역적들이고 우리 존엄과 제제를 시비 중상하지 않은자 없었지만 박근혜처럼 이렇듯 풀풀으로, 광개적으로 도전해 나선 대역적은 일 없었다.

미국 선별조차 피피들에게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 『북조선을 자국』하였다고 닥달질을 한 사실은 여도의 꽁치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년의 히스레리는 지난해 10월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에는 서 청정을 이루었는지 선무당이 너의 불길한 일날을 점쳐지지 않았는가세계에 이상하리만큼 거지풀을 불고 후방증후증을 보이였다.

『해우기 개발기』는 『굶주린 파

북조선을 위한 우리의 북남관계를 원회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

6. 15의 육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와 『평양점령』과 같은 신록한 대결방언

불을 즐기던 끝에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은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만도한 한 문화와 경악의 4년,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악몽과 지옥의 4년, 민족의 존엄과 비극을 외세에서 숨없이 팔아먹은 수치와 오욕의 4년이었다.

세계정치사에 악명을 매친 통치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와 같이 4년간 그동안 어마어마한 만고죄 악을 저지른 특급범죄자는 절

풀장내겠다는 각오를 가지자.』고 고맙지, 민인용적법죄행 위도 서슴지 않는 대결왕너의 망동으로 하여 남

사분계선지역 상공에 전일시켰으며

조선인민들은 어디에서 덕처울지 모

를 무서운 혁파장을 고스란히 들쓰

게 되었다.

박근혜역적폐당의 집요한 북집전 선제액에 물어들여 부모별한 선제자와 격훈원까지 발광적으로 벌려놓았다.

『씨드』라는 미국의 피파를 제집안에 끌어들이기로 친한은 천하제국으로

박근혜년의 죄악의 『죄적』일 것이다.

동족을 해칠수만 있다면 남조

설향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연구원은 호

한 행진경비로 민도는 용납 못할 한

괴리와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렇게도 불을 즐기던 박근혜가

지금 역사의 회향대우에 오른것은 오

한 광활한 평원에 놓여주는 걸

파만을 낳았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초사이에

만대 박근혜역도는 광화경을 내

놓아 평화적인 걸상회와 시위에 나선

각계 층 주민들에게 7만 9,000여

명의 물대포를 쏘아냈으며 그 광은

5월 1일 하루밤에 만도 무려 450여

명이 차단되었고 이 기간에 살로한 독성의

루역은 700여명으로 그 전에 흥사용

방의 3,700여명이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집권 4년은

먹고 살기 힘들어 살수가 없고 족족

에 숨이 막혀 살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도지로 광장에 놓여주는 걸

파만을 낳았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

위자들에게 무사별적으로 놀려온

성희루역이 차고넘치고 고령의 배낭

기능인과 피코팅침이 직사로 쏘이며

도지로 광장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

되는 꿈꿔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평화적인 시